

태권도원 영상광고로 대국민 홍보

태권도진흥재단, 서울역·용산역·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시내 8곳에 광고 홍보·이벤트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서울역과 용산역, 고속터미널 및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태권도원 영상광고를 내걸고 이와 관련한 '태권도원 광고 사진 찍기' 이벤트를 진행,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광고는 '2023~2024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 명절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 서울역 내·외부 대형 전광판, 용산역 미디어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시내 8곳에 게시된다.

재단은 광고와 더불어 2월 17일까지 '태권도원 광고를 찾아라' 이벤트를 준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참여방법은 광고를 배경으로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태권도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누리집 혹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단 노철수 마케팅부장은 "전 세계 유일한 태권도 관광지가 바로 태권도원"이라며 "한국관광100선을 비롯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을 설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서울역과 용산역, 고속터미널 및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태권도원 영상광고를 내걸고 이와 관련한 '태권도원 광고 사진 찍기' 이벤트를 진행,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광고 게시 첫 날, 서울역에서 광고를 접하고 있는 유희영(서울, 41세)씨는 "도장 다니는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까하고 태권도원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좋은 곳이 광고도 안하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광고를 만나니 너무 반갑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광고를 추진한 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지난 해 태권도장 활성화 TV광고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앞장서온 만큼 태권도를 더 자주 접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광고 홍보에 신경을 쓸 생각"이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태권도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태권도원 영상광고는 1월부터 2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관련 이벤트도 같은 기간 함께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토끼띠해에 어울리는 그림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토끼해 '토끼 그림책' 출간 잇따라

'겨울이 좋아! 토끼 베이커리' · '꼬마 토끼와 사과나무' 등

토끼띠해에 어울리는 그림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마츠오 리카코의 '겨울이 좋아! 토끼 베이커리' (지하사 아트북)는 꿈꿨던 호숫가에서 베이커리를 연 토끼들의 이야기다.

다섯 마리 토끼는 한겨울 추위를 몰아낼 따뜻한 간식을 만든다. 바퀴 달린 집에 사는 토끼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재료를 모으고, 가게를 열어 딱딱딱한 갓 구운 토끼 빵, 부드러운 크림을 얹은 머랭 케이크 등 손님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든다. 토끼들은 "우리 모두 '나만의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다"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시이 무쓰미의 '꼬마 토끼와 사과나무' (북뱅크)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꼬마 토끼의 행보를 담았다.

꼬마 토끼는 봄에 태어나 사과를 본 적이 없다. 처음 먹어본 사과 잼의 맛에 놀라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혼자 찾아가 보기로 한다. '사과'를 매개로 엄마와 아이가 주고 받는 대화가 너무도 사랑스럽다. "음, 대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과 거짓말, 엄마

는 어떤 게 듣고 싶어요?" 다정다감한 엄마 토끼의 말과 꼬마 토끼의 천진한 행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지언정 에피소드다. 작은 모험의 아픔을 끝내고 엄마 품으로 돌아와 안겨 있는 장면, 글 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어린 사과만 그려진 장면은 아름답고 따뜻하다.

'초록 언덕 토끼 점빵' (밝은미래)은 늘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여우에게 시작된 기분 좋은 변화를 다뤘다.

초록 언덕에 사는 여우는 늘 혼자다. 그제 날씨가 강한 여우다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여우 집에 점빵이 토끼 자매가 찾아오고, 이들 자매의 빵집 '점빵'에서는 늘 고소한 냄새가 난다. 여우는 손님이 가득한 점빵을 보자 배가 아파서, 토끼 자매를 내 쫓을 작정을 꾸미기 시작한다.

여우의 가슴에도 갓 구운 빵의 온기가 스며들까? 이웃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다. /뉴스

"英박물관, 다시 '중국 설'로 공식화 부끄러운 조치"

서경덕 교수, "이성적인 처사 해야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영국 대영박물관이 '한국 음력 설'이란 표현을 썼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 공격에 '중국 설'로 수정한 것에 대해 "이성적인 처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영국박물관이 '한국 음력 설'이라고 표현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다시 '중국 설'로 공식화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중국 누리꾼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영국박물관이 '항복'을 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대영박물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 전통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트위터 계정에 'Korean Lunar New Year' (한국 음력 설)을 홍보 문구로 표기했다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설이 언제 한국 것이 됐지? 박물관이라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라" 등의 댓글 공격을 받았다. 이후 대영박물관은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22일 트위터에 포함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국 청나라 여성의 그림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Chinese New Year' (중국 설)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그냥 억지 주장만 펼치는 중국 누리꾼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무서웠나 보다"며 "세계적인 박물관이라면 지금 당장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회피' 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처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솔직히 '부끄러운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러 제보를 통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2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SNS로 '중국 설'을 기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번 영국박물관과 프리미어리그 소속 구단들의 '중국 설' 표기는 최근 영국 내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난주 총리실에서 설 맞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리시 수내 영국 총리가 한국·중국·베트남 관련 인사들을 초청했고, 연설 중에도 '음력 설' (Lunar New Year)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영국박물관 및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중국 설'이 아닌 '음력 설' 표현이 맞다는 항의 메일을 보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뉴스

김제시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혜택 가득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25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의 시작을 알린다고 전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는 도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두배로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일데이 컬처'를 운영계획 중이다.

'두배로데이'는 도서 대출 권수가 현재 1인당 최대 5권인데 10권으로 도서 대출권수를 확대해주는 서비스이고, 결합상품인 '일데이컬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2월 캠프컨셉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를 운영예정이다. 주로 가족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해 동화요리, 미술활동, 공예활동 등의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계획 중이다.

2월 22일 오후 6시 30분 도서관 3층에서는 겨울에 즐기는 캠프컨셉 영화상영으로 '안녕, 자두야'를 상영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람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데이컬처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매일 1일부터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년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팔복예술공장은 예술가들의 교류와 실험의 장으로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국내·외 예술가 48명의 새로운 창작과 실험을 지원하며, 입주작가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다.

창작스튜디오 6기 모집 인원은 7명으로, 입주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접수는 3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편 최종 선발된 7명에게는 창작 공간 제공을 비롯해 전시 실현 기회, 리서치투어와 비평가 매칭 등 창작지원 프로그램, 국내 네트워크 교류, 온·오프라인 홍보 및 출판물 제작 지원과 전주 외 타지역 입주작가에게는 숙소를 제공한다.

창작기획팀 김진 차장은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욱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에서 작가들 간 교류를 통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